

김해·양산 농어촌공사 호우 대비 총력

☞ 장영환 기자 | Ⓞ 승인 2025.08.10 20:06

저수지 방류·배수장 가동 준비
"농업인 안전 최우선 고려할 것"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김해양산부산지사 직원이 호우에 대비해 지역민의 안전과 농경지 보호를 위해 선제적 재해 대비 조치에 나서고 있다. /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김해양산부산지사는 최근 이어지는 호우에 대비해 지역민의 안전과 농경지 보호를 위해 선제적 재해 대비 조치에 나섰다.

김해양산부산지사는 지역 내 10개의 저수지에 대해 사전 방류를 실시 중이다. 이를 통해 우수지의 저장용량을 최대한 확보해 집중호우 시 유입되는 물을 효과적으로 분산시킬 계획이다. 저수지 수위를 미리 낮춤으로써 갑작스러운 강우에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더불어 실시간 기상 모니터링을 통해 상황에 따라 추가 방류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침수 취약 지역 보호를 위해 43개소의 배수장 가동상태를 전면 점검하고 사전 배수 작업을 통해 배수 효율성을 강화했으며, 긴급상황 시 가동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했다.

특히 과거 침수 피해가 잦았던 곳을 중심으로 5개의 배수장을 건설 중이며 추가로 3개의 배수장을 설계 중이다. 이를 통해 배수 용량을 확대해 향후 농경지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정훈 김해양산부산지사 지사장은 "호우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항상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관할 시설들의 점검과 방류 작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며 "지역 주민들과 농업인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철저한 사전 대응에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또 "김해양산부산지사는 다각적인 조치를 통해 지역 내 농업인들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농어촌지역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경남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장영환 기자